

역사·문화·야간경관 어우러진 나주읍성서 ‘달빛산책’

나주문화재단, 음성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 진행 문화해설사와 골목 유람...“문화관광 명소로 육성”

나주문화재단이 역사와 문화, 야간 경관을 결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며 나주읍성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일 나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최근 나비레라문화센터와 나주읍성 일원에서 야간 문화관광 프로그램 ‘골목유람 나주읍성 달빛산책’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나주읍성 생활권 단위 로

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읍성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야간 관광 콘텐츠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매력을 알리고 야간관광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참가 신청자가 80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으며 조기 마감돼 선착순으로 선정된 4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문화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나주읍성 골목길을 걸으며 명동거리와 고평거리, 목사내야, 최부기옥터 등 주요 역사문화자원을 둘러보고 나주의 역사와 이야기를 생생하게 체험했다.

나비레라문화센터에서는 ‘행운새 테라코타’ 만들기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이 직접 희망 메시지를 작성하고 작품을 신정문화관에 전시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탐방 과정에서는 다양한 미션 프로그램과 지역 상권 연계 체험도 함께 운영됐다. 참가자들에게는 나주 로컬크리에이티브 플리마켓 바우처를 제공해 지역 상권 이용을 유도하고 로컬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신정문화관에서는 참가자들이 만든 행운새와 소원 메시지를 함께 전시하며 지역의 안녕과 개인의 소망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고 판소리 공연이 더해져 나주만의 전통문화와 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문화행사가 완성됐다.

김찬동 나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주읍성 달빛산책은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나주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나주읍성을 대표 문화관광 명소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원진 기자 pose007@



“골목유람 나주읍성 달빛산책” 참가자들이 문화해설사와 함께 나주읍성 골목길을 탐방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나주시청



곡성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점검하고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곡성군청

곡성순환경제 모델 주목... 기본소득사회 앞당긴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방문...우수사례·불편 사항 등 청취 생활서비스 접근성 확대·공동체 회복·소득창출 실현 기대

곡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반찬 나눔과 이동점방 등 곡성순환경제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곡성군을 방문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점검하고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축곡면 로컬라이프 기림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곡성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현황과 사회연대경제조직 운영 사례를 살폈다.

특히 현장에서는 함께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함께마을밥상’, ‘마을빵집’ 등 주민 주도형 농촌돌봄공동체 사업이 소개돼 큰 관심을 받았다.

함께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은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반찬 나눔과 안부 확인, 공동식사 등을 제공하는 농촌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마을빵집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동체 회복과 소득 창출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이어 고달면 대사마을회관을 찾아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 중 하나인 이동형 생활 서비스인 이동점방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동점방은 생필품 구매가 어려운 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을 순회하며 휴지, 라면, 세제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이동형 생활 서비스로, 곡성자활센터에서 이동점방(월~수요일)과 희망복지지원서비스(목요일) 등 공공복지사업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기본소득

사용 편의를 높이고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는 사례로 주목받았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며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주민자치회 등 주민이 주도하여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곡성형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기본소득과 연계한 복합 사회서비스 실증사업인 ‘산돌봄 프로젝트’(중앙사회서비스원 주관)를 추진하고 있으며, 돌봄·생활서비스·지역경제가 결합된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모델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고흥형 영농형 태양광 개발사업’ 본격화 지속 가능한 발전·기본소득 마련 기대

민선 9기 고흥 핵심공약 ‘고흥형 영농형 태양광 개발사업’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대표 협력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1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나주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과 기초단체장 당선인 간 업무공유회에서는 지역 현안과 상생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공영민 군수는 이 자리에서 고흥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고흥형 영농형 태양광 개발사업’을 제시하고, 특별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우주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영농형 태양광 개발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1호 출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군은 1GW 규모의 고흥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개발을 위해 우선 고흥군 일원에 100MW급 영농형 태양광과 ESS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100개 마을, 1만여명이 참여하는 주민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총사업비 29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발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공공형 모델로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RE100 전력 공급과 군민 기본연급 기반 마련에도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주항공 산업과 신재생에너지를 고흥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가겠다”며 “고흥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기본소득 마련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공영민 고흥군수가 최근 업무공유회에서 고흥형 영농형 태양광 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위원회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흥군청

담양, 고흥기부-디지털관광주민증 이벤트 선착순 100명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권 증정

담양군은 오는 21일까지 ‘담양 디지털관광주민증’ 서비스와 연계한 고흥사랑기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담양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담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숙박·식음료·관광·체험·쇼핑 등 5개 분야 49개 업소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벤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담양군 기간 내 담양군에 10만원 이상 고흥사랑기부부를 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 또는 누리집에서 ‘담양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뒤 신청서(네이버 폼)를 제출하면 된다.

고향사랑기부 참여와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순서는 관계없으며, 기존에 담양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도 이 이벤트 기간 내 기부에 참여하면 응모할 수 있다.

군은 이벤트 응모자 가운데 선착순 10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부자는 고흥사랑기부부를 통한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 담양 공공관광지 무료입장, 디지털관광주민증 할인 혜택, 이벤트 경품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누리집과 공식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가 담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흥사랑기부부로 이어지고, 디지털관광주민증을 통해 담양의 매력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연계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보성, 소나무재선충병 선제 방제 ‘총력’ 감염목 800여본 제거·예방 나무주사 165ha 실시

보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목과 고사목을 신속히 제거하고 예방 나무주사 등 선제적 방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류를 고사시키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한 번 발생하면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조기 발견과 초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군은 주요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 예찰을 강화하고 감염목과 고사목을 신속히 제거하는 한편,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벌교읍과 화천면 일원에 사업비 7억7300만원을 투입해 감염목

과 고사목 800여본을 제거하고 예방 나무주사 165ha를 실시하는 등 집중 방제를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산림재난대응단을 중심으로 지역별 정밀 예찰을 지속 실시하고, 추가 감염목이나 고사목이 발견될 경우 전방 방제업체와 연계해 신속한 제거와 방제 작업을 추진하는 등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선종환 보성군 산림산업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조기 발견과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산림재난대응단, 산림소유자, 지역 주민이 함께 상시 예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방제와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한 산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함평,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착수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9월 최종 계획안 확정

함평군이 민관 합동으로 군 복지정책 전환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며 민·계합형 복지정책 기반 마련에 나섰다.

1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청사 소회의실에서 ‘제6기 함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및 분과별 회의’를 실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해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목표와 전략,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4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제6기 계획은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함평군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보고회에는 함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기관 관계자, 관계 공무원, 민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관이 함께 지역 돌봄·건강·고용·주거·이동·노인·장애인 등 복지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 제5기 계획의 추진 성과와 복지 현안을 공유하며, 제6기 계획 수립 방향과 일정을 공유하고 분과별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군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테스크포스(TF) 운영, 실무분과 회의, 주민 의견 수렴, 중간·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최종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와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담아 군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복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근 기자 6263739@gwangnam.co.kr